

순천대 박물관, 통합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수·순천·광양 각 30여 개 초등학교와 연계 진행 첨단기술 활용, 문화재 탐방·음악·미술 종합 체험

순천대학교 박물관이 최근부터 여수·순천·광양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V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2022. 순천대 박물관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체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2022. 순천대 박물관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체험'은 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발전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전남 동부권 유관기관이 손을 맞잡아 성사되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이 중심이 되고 전라남도 순천 여수 광양교육지원청과 순천시에서 예산 및 홍보를 지원하는 문화예술체험은 ▲통합예술로 보는 우리동네 유적탐방 ▲우주에서 꾸며보는 VR전시, 2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통합예술로 보는 우리동네 유적탐방'은 순천대 박물관에서 직접 발굴·조사 한 여수 고락산성과 순천 감단산성, 광양 마로산성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관람하고, 탐방으로 보고 느낀 점을 예술활동으로 표현한다. 태블릿을 이용하여 그림과

음악을 직접 만들어 보고, 율동을 곁들인 짧은 공연을 통해 친구들과 공유해보는 종합 체험 프로그램이다.

'우주에서 꾸며보는 VR전시'는 순천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서화 감상에서 시작해 활동 무대를 가상공간으로 옮긴다.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사군자와 두려움의 대상이자 수호신의 상징이었던 호랑이, 여수·순천·광양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인 동백·매화·두루미(학) 등 그림 속 소재들을 살펴본 후 친구들과 함께 VR기기를 이용해 가상공간으로 꾸며진 우주에 들어가 함께 그림을 그려보는 프로그램이다.

순천대 박물관은 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올해 초까지 기존 전시공간을 교육·전시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30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VR장비를 구비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교육을 받은 순천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및 사범대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 투입하여 VR기기 사용 등 체험에 어려움을 느끼는 개별 학생들을 지



원할 예정이다.

순천대학교 박물관은 여수·순천·광양 각 30여 개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4월부터 8월까지 주중 오전 9~12시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원활한 체험학습을 위해 캠퍼스가 지 차량도 제공할 계획이며, 오전에 박물관 체험 참여 후 오후에 학교 밖 체험활동을 하는 학교의 경우 활동이 끝날때까지 이용가

능할 예정이다.

순천대 고영진 총장은 "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해 대학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와 인적자원을 활용, 생생한 체험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평생교육관, 탄소중립 환경교육 체험 행사 개최

광양평생교육관은 전남교육공동체 탄소중립 실천주간에 맞추어 16일 학생과 학부모 60여명을 대상으로 주말 평생학습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번체험은 전남도교육청 '2022. 전남교육공동체 탄소중립 실천주간'에 앞서 지역민들에게 환경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실천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50 탄소중립! 지구를 지키자"는 주제로 공기정화 이끼식물 스칸디아모스를 활용한 액자 만들기 행사로 진행되었다.

광양=심종섭 기자



장흥교육청 Wee센터 정신건강 자문의 위촉식

장흥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5일 정신건강 자문의 위촉식을 개최했다. 프로그램 운영 방안과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자문이 필요한 현실과 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장흥Wee센터의 자문의로 위촉된 벌교 삼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OO 전문의와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OO 부교수는 4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 Wee센터로 방문하여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심리치료 자문뿐만 아니라 교사 연수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슈퍼비전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흥=김도영 기자

함평교육청, "함평의 미래인재 육성, 내 고장을 아는 것부터 시작"

함평교육지원청은 18일 함평군 읍다면에 있는 오산박주다목적센터에서 관내 11개 마을학교 대표가 참여하는 마을학교 대표자 협의회를 운영했다.

이번 협의회는 마을학교 대표 및 실무자가 한 자리에 모여 마을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도지정 마을학교가 주관하는 마을학교별 프로그램 순회 참여를 위해 개최되었다.

범미경 교육장은 "학교에서의 배움이 삶으로 연계되어 함평의 아이들이 마을과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마을학교가 학교교육과정 중심에서 학교에서 보다는 마을학교에서 배움이 더 커질 수 있는 생태환경교육 지원, 함평의 아이들이 다양한 미래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지역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역사, 환경, 인물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실 것과 학교별 교육과정 재구성 시 배움의 소재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늘 함께 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마을학교의 방향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함평 마을학교 대표자 회장이인 도담도담 마

관내 11개 마을학교 대표자 협의회 운영



을학교 대표자는 마을학교 대표자 협의회에 교육장님이 방문해 주심에 감사에 표하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살고있는 동네에 대해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교육장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대표자 협의회를 통해 이 부분과 생태환경교육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고 학교와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함평교육지원청은 함평창의융합교육관 2층에 교육공감꿈마을이라는 마을학교를 위한 공

간을 마련하였으며, 매월 마을학교 대표자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 한해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학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공유와 공감을 시작으로 학교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구현하기 위한 마을학교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및 학교혁신지원단, 학교별 관계자 등과 나누는 자리 마련 등 학교를 품은 마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담양교육청, 독서인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담양교육지원청은 담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지닌 '가사문학 향기를 품은 담양인'을 기르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초1~2학년의 그림책을 활용한 '처음 만나는 인문학', 초3~4학년의 체험중심 '가사문학 길 따라 담양여행', 초5~6학년과 중1~3학년의 글쓰기 중심 '가사문학의 맥 이어가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독서 성향을 진단하여 맞춤형 독서를 지원하는 '올바른 책읽기'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4월 4일에 실시된 담양동초의 올바른 책임기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진행된다.

지난 15일 가사문학 길 따라 담양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무정초등학교 학생은 "우리 고장 담양의 문화유산을 더 자세히 알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시가문학촌을 가보고 담양이 더 자랑스럽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